

사회적 기여를 위한 생활예절교육의 현황 및 확산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이 정 우

강사 김 연 화

목 차

1.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
2. 생활예절교육의 현황
3. 사회적 기여를 위한 생활예절교육의 확산방안 모색

1.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

관습적으로 행해져 내려온 생활규범인 예절은 인간생활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자기관리와 함께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여 이 세상을 기분 좋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즉, 예절은 인간생활의 규범이요 생활을 보다 명랑하고 생동감 있게 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E. Post, 1997, 이정우 외, 1998).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이 시대에 적합한 모습의 예 규범(禮規範)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로 인해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대학, 직장, 부모교육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인성교육에 목표를 둔 예절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변화는 학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또한 변화시켜 이론위주의 학문보다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학도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할 때 가정학의 실천적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서병숙, 1991). 일찍이 그리세즈(Grisez)와 샤우(Shaw)에 의하면 “윤리란 철학의 한 분야로서 인간이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의는 인간 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정학의 본질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한 사회에서 어떠한 윤리의식이 형성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기인하는 실천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서정희 외, 1993)가 있음을 고려할 때 다른 어떤 학문영역에서보다 실천학문인 가정학에서의 예절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통사회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교육되어오던 예절교육이 근래 학교교육으로 대부분이 이전되었으나 가정학에서는 오히려 세부전공과 관련되는 기초학문의 지식흡수에만 주력해 예절교육, 생활문화교육이 축소·경시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예절교육, 인성교육이 우리생활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가는 추세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가정학에서 심도 있게 연구되고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부대학에서 가정대학 관련 특수대학원에서 생활예절·다도에 관한 학과가 일부대학에서 개설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다른 전공에서보다는 차별화 된 예절교육을 가정(기술)시간에 이미 일부 교사들이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활과학부에서 가정학교육의 교과과정에 이를 포함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웃어른을 공경, 타인을 배려하며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함으로서, 생활의 질서와 사회윤리를 바로 세우는 동시에 예절교육을 가정학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의례에 관해서 보면 한국가정생활사나 가정경영학, 결혼과 가족관계, 한국가족사, 생활예절 과목 등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데,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생활에 적절하게 조화시켜 가족원 개인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규범교육, 바람직한 시민의식, 건전 가정의례 계도, 삶의 질 향상 등 가정생활문화와 연결시켜 지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과의 교과지도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절교육은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개인, 가족, 민주 사회의 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가정학의 범주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에 이르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21세기에 들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문적 정체성 및 전문성 못지않게 사회적 기여를 위한 측면에 가정학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고는 지난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에서 “대학 예절교육의 실제 및 활성화 방안”의 후속으로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예절교육확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생활예절교육의 현황

생활문화와 예절은 가정에서부터 국가간의 국제의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중요시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은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 그에 따른 교육과 실천은 미미한 실정이다.

1) 유치원 - 기본생활예절교육, 사회성훈련, 다도교육

2) 초·중·고등학교

- 초등학교 - 저학년은 생활의 길잡이, 바른 생활, 고학년은 도덕, 실과 등에서 일부 다루며, 학교에 따라 명예교사나 초청강사를 통한 특강, 학생간부들의 임원수련회에서 인성교육 차원으로 예절교육. 학교에 따라 기본생활습관 기록장을 이용하여 인성교육 등...

- 중·고등학교 - 가정(기술)과목, 국어, 윤리, 사회과목에서 일부 다룸. 초청특강, 생활관교육실습(여학교가 대부분이며 경기고교 등 일부 남학교에서는 단기간 생활관 교육, 또는 학생대표만이 임원수련회를 통해 일부 예절교육)

3) 대학교 - 1989년까지는 국민윤리과목에서 일부 다루었고, 가정대학에서는 이미 교과내용 중 일부 또는 생활관교육을 통해 지도하여 왔고, 현재는 교양과목인 생활예절이 일부 학교에 개설되어 있음

- 대부분이 가정대학에서 개설했으며, 일부 교양학과나 경영학과에 개설; 더욱 자세한 것은 김연화, 1999참고- OHP) 취업지원과에서 면접예절 등에 대한 특강.

- 2년제 여성교양학과와 보육학과에서 예절지도사 1급 자격증 부여.

4) 기업 - 신입사원교육, 직무 연수교육, 보수교육 등.

- 직장예절, 대인관계예절, 복장,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

5) 사회교육기관 - 대학의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성균관, 사단법인이나 문화원, 예절연구원, 호텔 서비스교육원 등등

- 공무원 예절교육, 사회교육, 초·중등교원연수, 일반

인 대상 교육과 전통문화 시연 및 보급, 특히 다도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절학회도 운영.

- 6) 정부 - 외교관 교육을 비롯하여 공무원 연수교육에 예절교육
 - 공직자 윤리, 친절교육, 전화예절교육, 테이블매너 등

기타 - 청소년 보호시설, 교도소, 자격증 소지자 보수교육, 등등

3. 사회적 기여를 위한 생활예절교육의 확산방안 모색

1) 가정학적 측면에서의 생활예절교육

가정학은 생활 속에서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며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생활양식을 탐구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학문이다(이기춘, 1999).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가정학자들이 생활예절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가정학의 정규커리큘럼 내에 도입, 개발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공과목 혹은 교양과목으로 할 것인가, 또는 가정생활교육이나 가정복지사 교육에 편입시킬 것인가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 몇몇 대학에서 학부제 이후 가정과 개설 교양과목의 활성화에 생활예절과목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예절관련과목의 개설도 우선 고려해 볼 필요 있다.

2) 생활예절관련 연구방법 및 교육의 확산측면

생활문화와 예절관련연구는 전통사회의 가정생활에 관한 연구나 가정의례에 관한 이론적, 문헌고찰과, 유아나 청소년, 주부대상으로 가정규범이나 가정의례에 대한 태도, 수행에 관해 가정생활과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사회화나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가정생활개선진흥회를 통해 가정생활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정학 전반의 연구에서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과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와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생활문화와 예절관련 연구회를 통해 타학문과의 연계를 도모해서 가정

생활문화 및 예절교육의 초·중고교육과정 편입필요성에 관한 연구 및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고 본다.

3) 능력 있는 생활예절교육지도자 육성- 예절지도사자격증

생활과학에서는 가정생활기능의 사회화와 관련하여 전문영역의 지식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이기영, 1998). 즉 생활문화와 예절을 연구, 강의하고 현대사회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생활과학대학에서는 수준 있고 질 높은 예절지도사를 배출하며, 학회나 대학에서는 생활예절지도사가 학교나 사회, 복지관, 사업체 등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예절지도사 자격증이 사단법인이나 대학 사회교육원, 한국여성교양학회 등에서 부여되고 있으나 아직 국가의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없으며 이에 대한 기준도 각기 다르고 모호하다. 따라서 우선 가정관련학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정의례지도사와 연계시키는 방법을 적극 연구·모색해 보도록 한다.

현재 다른 기관의 예절지도사 배출현황을 보면 일정기간 수강 후 자격시험을 거쳐 2급 자격증을 부여하고, 저서나 논문, 강의나 기타 활동 등을 고려하여 1급 자격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가족상담사 자격증의 경우 각 학교마다 다른 교과 과정 때문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관련학회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연수회를 거쳐 이수케 한 후 자격을 부여하듯이 학회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참고- 생활예절지도사 관련 자료는 1999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세계화 시대의 생활예절 중 계선자, 예절지도사 인증제 도입)

4) 생활예절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현재 예절교육은 대학의 교양과목, 대학의 사회교육원(충남대, 조선대, 원광대, 충청대...), 성균관이나 한국예절교육학회, 한국예절학회, 사단법인 한국전례원, 예지원 등의 자체 예절교육프로그램과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교원연수 프로그램, 기타 기업체의 기업연수 프로그램, 국제문화교류회 등에서의 단기간의 예절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그 외의 곳에서는 대부분 1회~3회

정도로(1회 50분~100분)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대학의 교양과목 커리큘럼을 가정학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생활예절과목운영을 활성화 해야하며, 앞으로 가정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절교육에 동참하거나 교과목을 개설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질 높은 예절교육 확산에 기여해야할 것이다.

- * 전통예절에 전승과 보존 차원에서 전통예절교육 시연 프로그램
 - 내국인·한민족 및 외국인을 위한 전통예절(예, 작명례, 관혼상제례, 수연례, 다도, 한복, 식사예절 등)교육
- *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상품화
 - 어린이 예절교육, 청소년 예절교육, 성인 예절교육, 직장인 예절교육, 부모예절교육, 국제매너와 에티켓 교육 등
- * 전통의 의미를 살려 건전하게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예절교육의 개발
 - 생활차 교육, 건전 가정의례 규범 제시.....
- * 탈북자 적응과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생활문화의 비교를 통한 생활적응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등
- *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생활문화와 예절에 관한 홈페이지의 구축으로 정보제공, 건전의례문화 계도 및 상담

5) 예절교육기관 참여를 통한 사회적 기여 증진방안

구청의 사회복지과를 통한 연계 교육, 복지관, 기업체나 정부의 교육원이거나 수련원 등의 교육에 적극참여를 통해 가정학의 정체성을 알리고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노인대학이나 종교단체에서 고부관계, 손자녀관계, 친구관계 등에 대한 예절교육, 부부생활교육 프로그램에 부부예절, 청소년 회관이나 수련원에서의 청소년 예절교육, 그리고 예절교육원 등에서 의생활-전통복식, 현대식 복장예절... , 식생활예절- 테이블 데코레이션, 테이블매너, 다도, 사교예절, 가족간의 예절, 가정의례 등 생활전반에 걸쳐 전통교육과 함께 국제비교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예절을 지닌 시민정신을 함양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가정학의 대상이 가정, 가족에서 사회 생활권으로의 확대(이시가와 미노루,1999)라 볼 수 있다.

6) 생활예절교육의 실천을 위한 정책적 지원

건전 가정의례에 대한 지원은 문화공보부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그러려면 생활예절,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발표를 바탕으로 가정학적영역에서 생활문화와 예절 및 생활예절지도사의 사회적 의미, 그리고 그 필요성을 사회에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각 학교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로 지역 주민, 각 초중고교생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시민 교육에 기여하는 가정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하여 예절교육이나 가정의례 보급을 위한 지원을 받아 가정학자들이 생활문화와 예절의 보급에 출판, 연구, 사업, 교육 등으로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정학자들을 통한 생활문화와 예절교육의 활성화는 건전가정육성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친절과 배려,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고, 국제화시대에 문화시민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됨으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계선자(1999), 예절지도사 인증제 도입, 추계학술대회, 세계화 시대의 생활예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공인숙 외(1996), 기술에서 과학으로; 과학에서 인간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 49차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21세기를 향한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가정학회.
- 김경애(1995), 교육개혁과 가정학에 관한 토론, 제 48차 총회 및 학술대회, 대한가정학회.
- 김연화(1999), 대학예절교육의 실제 및 활성화 방안, 추계학술대회, 세계화시대의 생활예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김외선·장용선 공역, 세키쿠치 후사 외(1996), 가정철학 - 인간수호를 주축으로 하는 가정학의 확립을 위하여, 교문사.

- 서병숙(1991), 가정학과 윤리. 춘계학술대회: 가정학과 사회윤리, 대한가정학회.
- 서정희 외(1993), 가정학원론, 하우.
- 유영주 · 이정연(1995), 가정학원론, 신광출판사.
- 이기영 (1997). 인간과 생활환경에 대한 가정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편. 인간과 생활환경. 학지사
- 이기춘 · 홍형욱 · 황인경 · 신화용 · 김외숙 · 유혜경(1996), 21세기 가정학의 발전적 과제, 대한가정학회 제 49차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가정학회.
- 이기춘(1999), 생활과학의 오늘 그리고 미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3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생활과학의 변화와 미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이은영(1995), 교육개혁과 가정학: 도전인가 기회인가, 제 48차 총회 및 학술대회, 대한가정학회.
- 이정우(1999), 지구촌시대의 예절교육의 필요성, 추계학술대회, 세계화시대의 생활예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이정우 외 (1998), 생활문화와 예절,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시가와 미노루(1999), 'Oekonomikos'의 정신과 시점의 전화·확대 - 가족·가정으로부터 생활권으로-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3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생활과학의 변화와 미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E. Post(1997), Etiquette 16th edition, Harper Collins Publishers.